

제 목	국 문	일부대학 교직원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평가		
	영 문	An Evaluation Study on the Cardiovascular Risk Factors of the Staff in a Universit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기순 ¹⁾ , 김양옥 ¹⁾ , 박 종 ¹⁾ , 류소연 ¹⁾ , 홍순표 ²⁾ , 박찬국 ²⁾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 내과학교실 ²⁾		
	영 문	Ki Soon Kim ¹⁾ , Yang Ok Kim ¹⁾ , Jong Park ¹⁾ , So Yeon Ryu ¹⁾ , Soon Pyo Hong ²⁾ , Chan-Guk Park ²⁾ Dept. of prev. Med. ¹⁾ , Dept. of Int. Med. ²⁾ Chosun University Medical College		
분 야	역 학	발 표 자	김기순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심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높은 사망이나 불구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생활양식이 변화됨에 따라 점점 더 증가추세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국민보건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개 사립대학 교직원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1994년도 정기 건강진단자료를 정리하고 특히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실태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일개 사립대학 교직원의 혈압치, 혈중 콜레스테롤치 및 흡연율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파악하고 이상 3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종합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점수를 계량화하며 위험점수별로 순환기계통 자각증상 유병상태를 비교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연구대상은 일개 사립대학교 및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1994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한 건강진단에 참여한 자중 25-64세 해당자이고, 자료는 1994년도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 건강진단 시행 자료로서 건강진단 문진표와 검진기관에서 시행한 건강진단 검사 결과이다.

분석방법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분포를 파악하고, 전국의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진단 결과분석에서 나타난 자료를 5분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심혈관질환 위험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점수별로 본인의 순환기계통 자각증상 유병율을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1)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55세 미만에서는 전 연령 구간에서 남자의 평균치가 여자보다 낮았으나, 55세 이상에서는 남녀 평균치가 근접하였다. 혈청 총콜레스테롤치와 체질량계수도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하면서 평균치가 증가하였고 45세 미만에서는 남자의 평균치가 여자보다 높았으나 45세 이후에 역전현상을 보여 55세 이상군에서 여자의 혈청 콜레스테롤치와 체질량계수 평균이 남자의 평균보다 높았다. 남자의 흡연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율이 감소하였다.

2) 혈압치, 혈청 총 콜레스테롤치, 흡연상태를 종합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점수를 산출하여 그 분포를 관찰한 결과 남자에서는 총 가능점수 12점 중 4점을 보인 집단이 가장 많았고, 4점 이하자가 39.1%, 5점 이상이 60.9%였다. 여자에서는 4점 이하자가 61.7%, 5점 이상자는 38.3%였다.

3)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점수 크기에 따라 순환기 자각증상 호소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바 남자에 있어서 35-44세군에서 운동할 때 숨차는 것과 45세 이상군에서 가슴두근거리는 증상이 위험점수가 커짐에 따라 증상 호소율이 높아짐으로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고, 여자에서는 25-34세군과 45세 이상군에서 심혈관 위험점수가 낮을 때 현기증 호소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고찰

한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건강진단 자료로부터 심혈관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혈압치, 혈청 총 콜레스테롤치 흡연상태에 대하여 각각 대표치와 분포를 분석하고 삼대심혈관 위험요인을 종합하여 위험점수화 하였는데 위험점수의 크기에 따라 과연 심혈관질환의 발생정도나 사망율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한 지수가 될지는 앞으로 체계화된 코호트 연구를 통해 장기적 관찰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